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임새롬** · 송영욱*** · 백성혜**** · 민경훈*****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융합교육의 동향 분석과 함께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을 다루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음악 중심 융합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들을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주제 연계, 중심 키워드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음악 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음악 중심 융합교육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서양음악 영역 연구가 국악 영역 연구보다 30% 가량 더 많이 발행되었다. 둘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셋째, 연구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한편 평가 및 측정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넷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문헌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다섯째, 서양음악과 국악의 특성 차이가 융합교육으로의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음악교육의 목적이 음악의 내재적·외재적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 **검색어:** 융합교육, 음악교육, 음악 중심 융합교육, 국악 중심 융합교육

<목 차>

I. 서론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I. 연구방법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인간상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교육부 2015a, 3). 창의융합형 인재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새롭게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조대현 2019, 69). 정부는 분절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과거의 전통적 수업 경향을 탈피하여 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4081191)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사과정, 제1저자
***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소장, 화학교육과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khmin@knue.ac.kr)

동적이고 총체적인 안목으로 여러 지식을 융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재의 양성을 미래 세대의 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므로(백성혜 외 2017, 5),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적인 접근은 학문적 탐구뿐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다차원적·심층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Praxial Education)을 도모할 수 있다(김경화·장기범 2015, 212). 즉 기존의 틀을 깨고 예전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시각으로 경계를 허무는 발상은 이전에는 없었던 진공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방식에 기초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목적에 맞춰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주지교과와는 다른 방식의 표상을 통해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 ‘소통’하게 하며, 풍부하고 다양하면서도 타인과는 색다른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태진미 2011, 1017). 융합교육의 대표적 방식으로 꼽히는 STEAM(융합인재교육)의 ‘A’, 즉 예술(Arts)의 역할은 창의성 계발과 심미감(審美感) 육성에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은 과학기술교육과 예술교육을 융합하는 것이다(문경숙 외 2016, 50). 그러나 그 방식이 타 교과의 교육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머무르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연구의 접근은 무엇보다도 음악교육의 고유성과 특수성, 즉 ‘소리를 통한 음악적 경험과 학생 개인의 내적인 의미화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김경화·장기범 2015, 227)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융합교육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2011년 이후 새롭게 개정된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바로 직전의 2009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융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성격’ 항에 제시된 음악과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에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뿐이다. ‘성격’항과 ‘교수·학습방법’항에서는 ‘연계’라는 용어가 융합의 의미로 다음 <표 1> 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표 1> ‘성격’ 항과 ‘교수·학습방법’ 항에 제시된 연계의 융합적 의미

구 분	내 용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학습 경험을 확장시킨다. 첫째, 음악과 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영역들과의 연계는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과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후략) 둘째,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문·사회·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키고...(후략)(교육부 2015b, 4)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악곡에 포함된 00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를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하면서 음악 개념을 형성...(후략)(교육부 2015b, 6, 10, 14)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15b, 12). • 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적 지식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업을 통해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도록...(후략)(교육부, 2015b, 15)

이와 같이 음악과 중·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연계라는 용어가 융합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음악 연주』에서 기술된 내용·다른 예술 및 교과와 융합된 공연 방법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연 형태를 시도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으로 유일하게 융합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융합교육이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도 이미 교육계에서는 ‘범교과’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타 분야·타 교과와의 학제 간 연계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권난주·안재홍 2012, 266). 융합 인재교육(STEAM)과 더불어 STEAM의 전신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서 시작한 STEM 교육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김진수(2012, 30)는 이에 대해 ‘연계란 서로 다른 학문을 단순히 연관지어 통합한 것, 통합은 서로 다른 학문을 물리적으로 일부만 통합한 것, 융합은 서로 다른 학문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통합한 것’이라 하며 융합과 통합이 서로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범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담지하고 있다. 국내 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분석해 보면 흔히 융합교육으로 분류되는 초학문(trans-disciplinary)적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학문(inter-disciplinary, 통합형)적 수업부터 교과의 경계가 남아있는 전형적인 통합교육의 형태인 다학문(multi-disciplinary, 연계형)적 수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행된 관련 논문들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합교육 또한 대부분 초학문이 아닌 간학문적(통합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다학문적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융합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명료성이 아직 현장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 둘째, 융합교육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사 역량의 부족, 수업 시수 확보, 동료교사와의 협업, 융합교육 설계 등에 부담이 따르는 점이 유효한 것으로 짐작된다.

융합교육에서 융합의 개념이란 관련되고 적용되는 영역 및 교과에 따라, 또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MST, STS, STEM, STEAM 등 지금까지 ‘통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융합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면 무엇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했는지와 같은 결합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왔다. 조대현(2014, 187)은 융합이란 학문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물어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생긴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융합교육의 형태가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등의 이공계열과 문학, 사회, 역사, 윤리와 같은 인문계열, 또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예술계열 중 어떤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성격의 다양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국악교육에 있어 융합교육이라는 용어는 서양음악교육 분야에 비해 다소 늦은 2015년 한윤이의 연구¹⁾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국악이 악·가·무의 통합, 의식과 놀이로서의 통합이 대부분인 특성을 지닌 만큼 지금까지도 통합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악교육 분야에서는 융합교육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없었다. 융합교육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된 오늘날에 융합교육·STEAM과 관련한 학교급

1) 한윤이. ‘국악 중심 융합교육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국악교육연구 9-1. 237-264. 2015.

별·교과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물은 다소 나와 있으나 그에 비해 예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학술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이경진·이상수 2017; 최은영·문병찬·한광래 2017; 주희선 2018;).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는 주희선의 연구(2018)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희선은 음악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그 범위가 융합교육의 한 형태인 STEAM만을 대상으로 한 점, 서양음악과 국악을 구분하여 동향을 분석하지 않은 점, 세부 프로그램의 교과별·주제별 구성에 관한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융합교육연구의 전반을 다룬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융합교육의 일부가 아닌 현재까지 개발된 음악 중심 융합교육 연구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동향 분석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항목뿐 아니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음악 교과가 어떻게 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로써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음악과 융합된 타 교과나 영역 등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향후 후속 연구의 연구 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주제 설정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 교과 중심의 융합교육 논문 발행 편수,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 중 관련 교과의 분포, 서양음악과 국악 비중의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음악교육 분야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음악교육 분야 주요 국내 저널의 홈페이지에 제공된 학술논문검색서비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범위는 KCI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 논문으로 검색어는 ‘통합’이나 ‘융합’, ‘STEAM’을 포함하면서 ‘음악교육’, ‘음악’, ‘국악’, ‘예술’ 등을 함께 설정한 후 앞의 주제를 OR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누락되는 논문이 없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검색하였으며, 제목에 ‘통합’이나 ‘융합’이 나타나 있지 않은 논문이라도 국문초록과 본문, 키워드를 확인하여 분석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된 자료 중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와 학위논문 및 프로시딩(proceeding)과 같은 워크숍 세미나의 발표 자료는 배제하였다.

국내 교육계에 ‘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2011년부터 약 10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통합교육’이라는 용어와 ‘융합교육’간의 정확한 경계나 학자 간 일치되는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2011년 이전 연구의 본문을 확인하여 융합교육과 비슷한 방식과 구조의 연구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음악이 중심이 된 융합교육 주제임을 확인한 바 199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행된 서양음악 관련 44편, 국악 관련 24편, 총 68편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분석 방법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쓰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등 분석 대상 학술지의 내용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적 통계에 적합한 내용분석법은 자료의 성질을 탐구하여 유목화(categorization)한 요소를 서로 다양하게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통찰하는 방법이다.

먼저 예비분석을 통해 연구의 경향과 내용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기준들을 개발하였다. 이후에 분석 대상 선정 과정에서 1차로 검토된 자료들은 분석 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Excel과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 및 빈도(N),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의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저자 간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완성된 분석 틀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상호검토 및 비교하였다.

논문 키워드 분석은 의미 네트워크 분석으로 NetMiner 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논문 초록에 실린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먼저 키워드의 통일을 위해 정제화 작업을 한 후에 전체 단어 및 상위 20개 단어의 동시 출현빈도, 중심도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 결과는 클라우드(cloud), 2D-Spring으로 시각화하였다. 정제화 작업에서는 의미를 고려하여 띄기와 붙이기를 하였고, 유사한 단어는 묶어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음악교육’, ‘미술교육’은 ‘음악 교육’, ‘미술 교육’ 등으로 띄기를, ‘교육 과정’, ‘구성 주의’, ‘의사 소통’ 등은 ‘교육과정’, ‘구성주의’, ‘의사소통’으로 붙이기를 하였다. ‘개인적’, ‘사회적’, ‘창의적’ 등에서는 ‘~적’을 생략하였다.

3. 분석 기준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 참고를 비롯하여 저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조정하였으며, 이로써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과 같은 일반 동향 연구 항목과 개발 및 적용된 새로운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별 분석의 세부 항목으로는 관련 교과, 주제 및 소재, 주요 키워드로 구분된다.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이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사용한 방식을 모두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틀은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논문 분석 틀

항 목	내 용
발행연도	1998년~2020년 3월
연구 대상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예비교사, 현직 교사, 일반인
연구 내용	이론 연구, 인식 연구, 개발 연구, 효과 연구, 개발+효과 연구

항 목	내 용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연구 주제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과, 주제 및 소재의 서양-국악 분류
주요 키워드	출현빈도수 상위 20개 추출

가. 발행연도

앞서 언급한대로 199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행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수집·분류하여 총 68편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통합과 융합의 두 용어가 교육계의 동향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와 함께 서양음악과 국악을 다룬 비중이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발행연도는 이어서 논의할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 내용과도 관련지어 연도별 경향을 통한 해당 주제의 증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의 문헌, 즉 문헌을 분석하거나 이론을 고찰한 문헌 연구가 연구 방법으로서의 문헌 연구와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연구 대상은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각 논문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은 크게 학생과 교사, 일반으로 나누고 학생은 학교급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학생 대상은 학교급별로 유아, 초·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사는 예비교사(유아, 초·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대상)와 현직 교사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성인 대상은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다. 연구 내용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기준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저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론 연구, 인식 연구, 개발 연구, 효과 연구의 4가지와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개발+효과 연구까지 총 5가지로 설정되었다.

이론 연구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개념이나 이론 및 모델, 평가도구 및 수업 사례,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을 다룬 논문을 의미하며, 인식 연구는 연구 동향이나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현장 실태, 융합교육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한 논문을 말한다. 개발 연구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 후 연구 대상에 이를 적용한 논문이며, 효과 연구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양적·질적·혼합적으로 검증·분석한 논문을 의미한다. 즉 개발 연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와 이를 연구 대상에 적용한 경우까지 나아가며, 효과 연구는 연구 내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닌 기존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에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의 검증을 완료한 연구를 뜻한다.

위의 내용 중 2가지가 혼합되어 나온 경우도 따로 분류하였는데 개발+효과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효과 연구는 연구자가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용 후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기준은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구분하였다. 문헌 연구는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한 논문으로 융합교육에 관한 이론이나 교육 과정 혹은 정책 등을 고찰한 이론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양적 연구는 실험이나 설문 등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뜻하며, 질적 연구는 관찰, 기록,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과정과 결과를 서술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림이나 글 등으로 나타낸 경우이다. 혼합 연구는 위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동시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 복잡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연구 주제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에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 연구, 개발+효과 연구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 관련 교과, 주제 및 소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 관련 교과 분석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개발된 하나의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과를 계수하고, 초·중·고등학교 내 개설된 교과로 구분하여 그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이를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관련된 교과는 서로 인접한 교과끼리 묶어 국어 계열, 수학 계열, 사회 계열, 과학 계열, 예술·체육 계열, 정보기술·공학 계열, 기타로 구분하였다.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주제 및 소재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개발+효과 연구에서 관련된 음악 교과의 융합 목적이 음악에 목적을 두고 집중하는 내재적 목적 인지, 혹은 음악 외 다른 교육목적의 보조적·과정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교육의 목적이 음악 외에 있는 외재적 목적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 및 소재에 따라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융합되는 주제 및 소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바. 중심 키워드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논문에 ‘검색어’ 혹은 ‘주제어’로 등록된 키워드를 수집하여 정제화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의 연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중심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후 전체 단어의 출현빈도를 조사한 다음 이를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나타난 중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를 중심으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2D-spring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다룬 각 연구의 관계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링크수를 20%로 줄여 중심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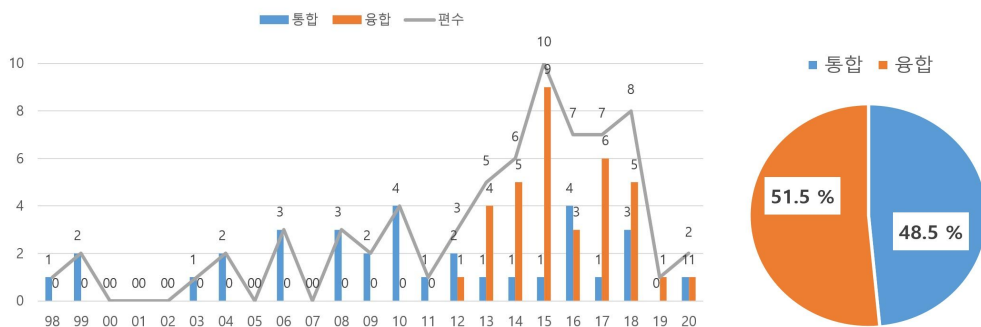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융합교육의 연구 동향 및 개발 프로그램의 음악적인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 중심 통합·융합교육 관련 논문 6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범주는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내용과 더불어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에 따른 관련 교과, 주제 및 소재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1. 발행연도에 따른 분석 결과

먼저 주요 저널 및 RISS에서 검색 가능한 음악 중심의 통합 및 융합교육 연구가 1998년도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편수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2011년 이후부터 증가하다가 2015년도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연구는 1998년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 연구를 볼 수 있었다. 유아에서는 특히 ‘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발달인지특성에 맞추어 분절된 교과가 아닌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하여 교육하도록 유치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융합이라는 용어 대신 통합이라는 용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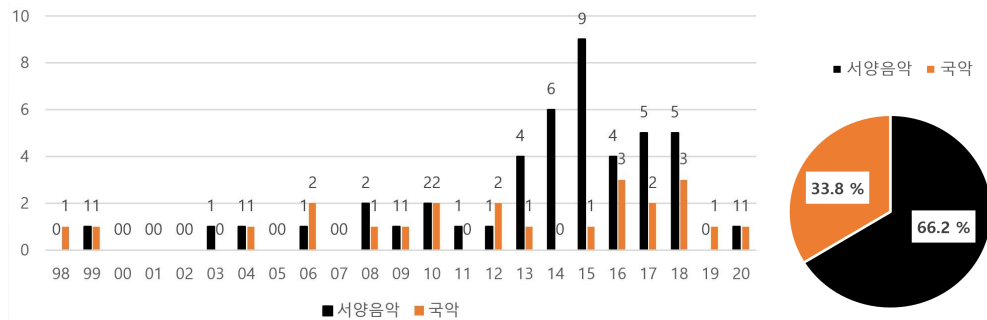
2011년 융합인재교육(STEAM)이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이후인 2012년부터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예술교육을 중심으로-’(이경진·이상수 2017), ‘음악 중심의 STEAM 연구 동향 연구’(주희선 2018) 등 예술 계열 중심 융합교육의 동향을 분석한 관련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STEAM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STEAM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총 68편의 연구 중 ‘통합’이란 용어는 48.5%, ‘융합’이란 용어는 51.5% 사용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융합’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1998~2020년 3월 음악 중심 통합·융합교육 관련 논문 발행 편수

한편, 아래 [그림 2]와 같이 서양음악교육 분야 연구가 국악교육 분야 연구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발행되고 있다. 또한 국악교육 분야 연구 발행수가 다소 평이하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서양음악교육 분야 연구는 2013년부터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융합교육이 과학 계열을 필두로 여러 교과가 융합되는 STEAM 교육으로 대표성을 띠게 되면서 음악과와 연계하는 것부터 점차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로 확장되어 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융합교육의 의미와 통합교육의 의미가 특별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국악교육 분야의 논문은 통합교육, 통합적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곡 자체에 이미 노래와 악기 연주, 여러 의식이나 놀이 활동 등 복합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은 당시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여러 예술과 역사·문화가 하나의 장르로 어우러진 국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즉 음악과 내 영역 간 통합이나 타 교과 간 혹은 타 예술 간 통합 지도가 바람직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론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국악 분야에서 융합교육, 융합적 교육이라는 용어는 서양음악교육 분야에 비해 늦은 2015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나 그 의미가 기존의 통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연도별 서양음악 및 국악 관련 논문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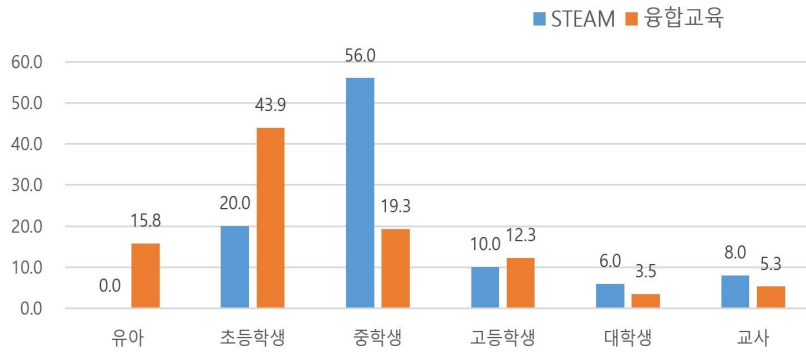
2.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는 하나의 연구가 대상을 2개 이상 중복 설정한 경우에도 각각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학생이 91.5%, 교사가 5.1%, 일반인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42.4%)·중학생(18.6%)·유아(15.3%)·고등학생(11.9%)·대학생(3.4%)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 상 한 명의 교사가 전 과목을 복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연유한다고 본다. 교사 대상은 현직 교사(3.4%) 다음으로는 예비 교사(1.7%)가 그 뒤를 이었다. 즉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학생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희선(20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그림 3]). 하지만 연구 범위를 STEAM으로 제한한 위 논문

의 연구 대상은 중학생이 46%, 초등학생이 16%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중학생 18.6%, 초등학생 42.4%)와 차이를 보인다.

<표 3> 음악 중심 융합교육 연구 대상

	발행편수(편)	비율	합계	비율	
학생	유아	9	15.3%	54	91.5%
	초등학생	25	42.4%		
	중학생	11	18.6%		
	고등학생	7	11.9%		
	대학생	2	3.4%		
교사	예비	1	1.7%	3	5.1%
	현직	2	3.4%		
일반	2	3.4%	2	3.4%	
합계		59(100%)			



[그림 3] 음악 중심의 STEAM(주희선 2018)과 융합교육 연구 대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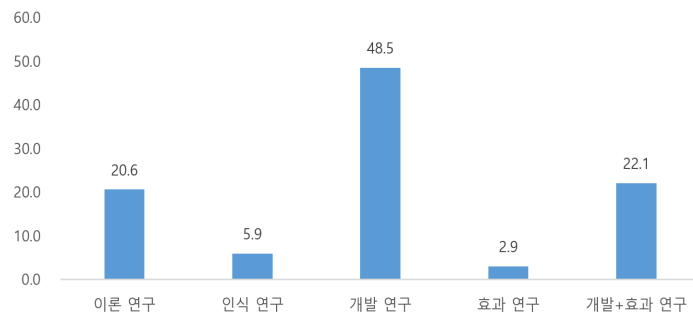
3.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

먼저 이 연구의 연구 내용에 따른 분류 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음악 중심 융합교육 연구 내용의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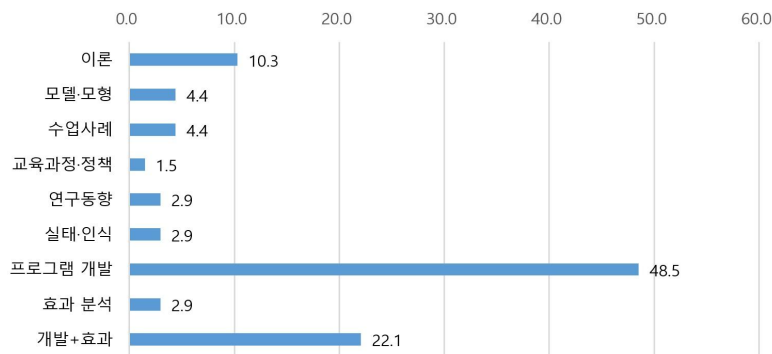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이론 연구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개념이나 이론 및 모델, 평가도구 및 수업 사례,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을 다룬 연구
인식 연구	연구동향이나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융합교육 대상자(교사,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개발 연구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 후 연구대상에 이를 적용한 연구
효과 연구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양적·질적·혼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한 연구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로는 [그림 4]와 같이 개발 연구 48.5%, 개발+효과 연구 22.1%, 이론 연구 20.6% 순으로 높았고, 이어 인식 연구 5.9%, 효과 연구 2.9%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개발 연구와 개발+효과 연구를 합치면 70.5%로 음악 중심 융합교육 연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론·인식·효과 연구에 비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 최은영 외(2017), 주희선(2018)은 STEAM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지원에서 비롯하며 전체 STEAM 연구 및 예술 중심 STEAM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 4]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 연구 내용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이론 연구(20.6%)에 포함되는 이론(10.3%) 7편, 교육모델·모형(4.4%) 3편, 수업사례(4.4%) 3편, 교육과정·정책(1.5%) 1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이론 연구로 융합교육이 음악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융합교육의 방향성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인식 연구(5.9%)는 연구 동향(2.9%)과 실태·인식(2.9%)이 각각 2편으로 현저히 적게 연구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만 연구한 논문 또한 2편(2.9%)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33편, 개발+효과 연구는 15편이며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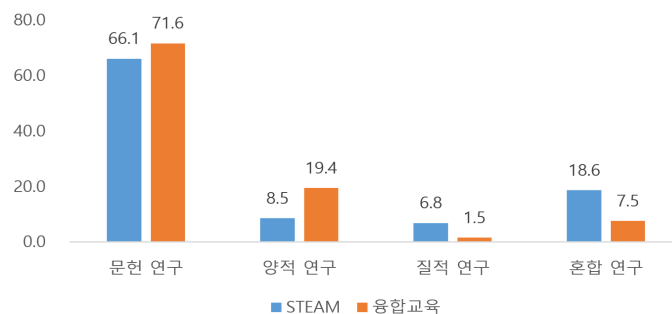


[그림 5]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세부적인 연구 내용

연구 내용에서 눈여겨 볼 것은 평가와 측정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목표달성, 교육방식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평가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관련 연구가 없는 것은 아직 융합교육이 수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융합교육의 개념과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의견이 나누어지며, 개발 프로그램 또한 다채로운 융합의 형태로 존재·변모하는 만큼 일정한 평가 양식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술지 논문뿐 아니라 학위논문에서는 더 많은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만큼 융합교육과 관련된 평가 및 측정 도구나 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는 문헌 연구 71.6%(48편), 양적 연구 19.4%(13편), 질적 연구 1.5%(1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혼합된 혼합 연구가 7.5%(5편), 효과를 검증하긴 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명확한 통계 혹은 자료 제시 없이 효과가 있다고만 주장한 논문을 기타로 분류(1.5%, 1편)하여 그 가운데 문헌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4. 연구 내용’에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48.5%, 이론 연구가 20.6%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이론이나 원리, 모델·모형의 개발과 교육과정 및 정책을 분석·고찰한 연구를 문헌 연구의 범주에 포함한 것,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한 연구 또한 문헌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 연구의 기타(1편)를 제외한 나머지 67편을 100%로 환산한 다음 주희선의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방법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림 6]과 같이 그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발+효과 연구와 효과 연구는 양적·질적·혼합 연구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업현장에 적용한 후 수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 내어 효과성을 검증한 양적 연구가 뒤를 이었으며,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나 관찰일지를 통해 참여자의 교육효과를 알아본 혼합 연구가 세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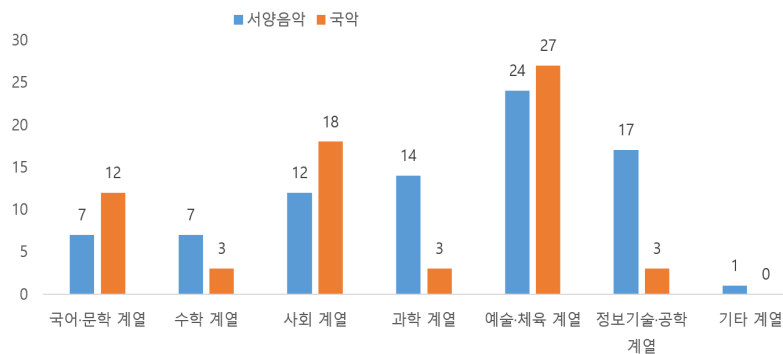


[그림 6] 음악 중심의 STEAM(주희선 2018)과 융합교육 연구 방법 비교

5. 주제 연계에 따른 분석 결과

먼저 음악 중심 융합교육과 관련된 교과 수를 분석함에 있어 유아의 통합활동을 제외한 학교급 교과로 제한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계한 교과를 모두 계수·분류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연계된 교과 수 전체 148개를 인접한 교과끼리 묶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연계된 교과 계열은 예술 및 체육 계열·사회 계열·정보기술·공학 계열·국어·문학 계열·과학 계열·수학 계열·기타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예술 및 체육 계열은 51편(34.5%)으로 미술 25편, 연극 5편, 무용 8편, 체육 13편이었으며, 사회 계열 30편(20.3%)은 사회 18편, 도덕 8편, 역사 4편으로 사회 계열 중 사회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보기술·공학 계열은 총 20편(13.5%)으로 정보·컴퓨터 5편, 기술 7편, 공학 2편, 실과 6편으로 나타났으며, 국어·문학 계열(12.8%)은 국어 14편, 문학 5편의 총 19편이 연계되었다. 다음으로 과학 계열(11.5%)은 공통과학 13편, 물리 2편, 생물 1편, 융합탐구 1편으로 총 17편이, 수학 계열은 10편(6.8%)이 파악되었고, 창의적 체험활동(1편, 0.6%)이 기타 계열로 분류되었다.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연계된 교과를 서양음악교육 분야 연구와 국악교육 분야 연구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7],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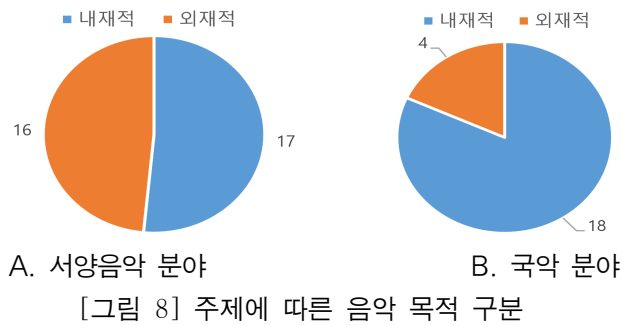


[그림 7]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나타난 주제 연계 교과

위 [그림 7]과 관련하여 국어·문학 계열, 사회 계열, 예술·체육 계열에서 서양음악보다 국악의 연계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융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국악 중에서도 주로 가사가 있는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의 성악곡이 주제로 다루어진 점과 둘째, 악곡의 가사 내용에서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거나 해당 악곡과 관련된 도상자료를 통해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활동하는 등의 관련 교과와 연계하는 방식의 지도 방안이 자주 활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셋째, 많은 국악곡들이 가·무·악의 종합 예술로 전승되는 만큼 전통음악이 신체표현이나 춤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수학과 과학 및 정보기술·공학 계열에서 서양음악이 국악보다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많은 연구에서 지

적했듯(백운수 외 2011; 권수미 2012; 조대현 2014; 이애란·태진미 2016; 등) 융합교육이 국내에 도입된 2011년 이후 초기 융합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음악이 과학교육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미래 인재 육성에 필수적으로 선별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그리고 수학(Mathematics)을 아우르는 STEAM 교육은 주로 과학 계열에 초점을 맞춰 음악 속의 과학 원리를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생활의 실용적인 주제로 연계한 탐색하기, 만들기, 제작하기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러한 차이와는 달리 예술·체육 계열과의 연계는 서양음악과 국악이 각각 높은 연계율을 보임으로써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 또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예술 간 융합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양음악 분야([그림 8]의 A)와는 달리 국악 분야([그림 8]의 B)는 타 교과와 융합교육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음악 자체에 있는 음악 내재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1. 발행연도에 따른 분석 결과’ 중 [그림2]의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8]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분류한 것으로 소리의 원리나 탐색과 같은 주제를 제외하고 서양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총 33개, 국악 관련 프로그램은 22개였다.



최근 들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학 중심의 융합교육을 탈피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들마다 자기 교과를 중심으로 두고 융합교육의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하나의 특정 교과에 치중하지 않고 융합되는 각 교과들의 비중을 대등하게 조직함으로써 기존 교과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교육 본래의 의미, 즉 전인교육의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합의 방식과 방향성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6. 융합교육 논문 키워드에 따른 분석 결과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총 141개의 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9]는 전체 단어를 클라우드(cloud)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클라우는 단어의 특징을 크기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Cyram 2017, 88).



[그림 9] 전체 141개 단어 클라우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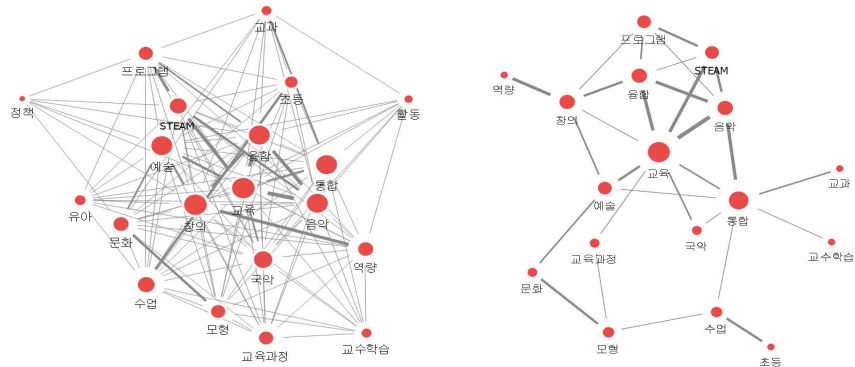
클라우드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음악, 교육, 융합, 통합, 예술, STEAM’, 그리고 ‘창의, 국악,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수업’ 순이다. ‘음악, 교육, 융합, 통합, 예술, STEAM’은 검색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한 핵심 키워드이지만, ‘창의,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수업’ 키워드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특징적인 키워드라 볼 수 있다.

다음 <표 5>는 키워드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와 중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도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중심도가 높을수록 단어들 사이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역할을 차지한다(Cyram 2017, 240). 중심도는 ‘교육’ 1.0000, ‘창의’ 1.0000, ‘융합, 음악, 통합, 예술’은 0.94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의는 ‘융합, 음악, 통합, 예술’보다 출현 빈도가 낮지만 중심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에서 ‘창의’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음악 중심 융합교육 상위 20개 단어 키워드 빈도 및 중심도

순위	음악 중심	빈도	중심도	순위	음악 중심	빈도	중심도
1	교육	44	1.0000	11	교육과정	8	0.6842
2	음악	38	0.9474	12	수업	8	0.7895
3	융합	31	0.9474	13	역량	8	0.7368
4	통합	28	0.9474	14	유아	8	0.5789
5	예술	20	0.9474	15	교수학습	7	0.5263
6	STEAM	15	0.7895	16	초등	6	0.6316
7	창의	14	1.0000	17	모형	5	0.6842
8	국악	12	0.8421	18	문화	5	0.7368
9	프로그램	12	0.6842	19	활동	4	0.4737
10	교과	8	0.5263	20	정책	3	0.3684

[그림 10]은 상위 20개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를 2D-Spring로 시각화한 것이다. 2D-Spring은 노드의 크기와 선으로 단어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Cyram 2017, 679). [그림 10]의 A는 상위 20개 단어에 대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융합, 통합, 예술, 창의, STEAM’ 노드의 크기가 크고 굵은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의 B는 링크수를 20%로 줄인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인데,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네트워크는 ‘교육, 융합, 통합, 창의,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은 ‘음악-융합-통합-STEAM-창의-예술-통합’으로, 융합은 ‘음악-교육-STEAM-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고, 창의는 ‘융합-교육-프로그램-예술-역량’으로, 통합은 ‘음악-교과-교수학습-국악-수업’으로 연결되었으며, 예술은 ‘통합-교육-창의-문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A. 상위 20개 키워드

B. 링크수를 축소한 네트워크

[그림 10] 상위 20개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I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주요 저널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199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행된 6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중심 키워드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 관련 연구는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융합교육 관련 연구는 STEAM이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2011년 이후 2012년부터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양음악 분야와 국악 분야의 비율은 서양음악이 30% 가량 더 높으며, 두 음악의 특성 차이로 인해 두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용어의 선택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가장 높은 순은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 고등학생, 대학생이며, 현직 교사

와 예비 교사가 그 뒤를 이음으로써 주로 학생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내용은 개발 연구, 개발+효과 연구, 이론 연구 순으로 높았고 인식 연구와 효과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연구는 전체 71%로 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가·측정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넷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질적 연구가 뒤를 이었는데, 질적 연구를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가 현저히 낮았다. 위의 각 항목별 결과는 예술 계열 중심 융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다른 연구들과 매우 유사하였다.

다섯째, 주제 연계에 따른 교과 분포는 예술·체육 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회 계열, 정보 기술·공학 계열, 국어·문학 계열, 과학 계열, 수학 계열, 기타 계열 순이었다. 서양음악과 국악에서의 비율 역시 음악의 특성에 따라 연계되는 교과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으나 예술·체육 계열 연계율은 비슷하여 예술 간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총 68편의 논문 중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은 서양음악과 국악, 즉 분야에 따라 융합교육의 목적이 달라지며, 이는 두 음악의 특성 차이가 융합교육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일곱째, 논문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창의,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수업’ 키워드는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특징적인 키워드라 볼 수 있으며,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의 네트워크는 ‘교육, 융합, 통합, 창의,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양적·질적으로 검증한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STEAM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며, 연구 항목마다 각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편중된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 또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내용과 대상, 방법이 다양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통합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유치원의 통합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통합된 활동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고학년 및 상급학교 수업 현장으로 갈수록 교과는 분절되고 융합의 양상이 드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다소 동떨어진 세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 동향에서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이 학생,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집중된 현상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담임제가 다른 것이 주효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를 한 명의 교사가 맡아 가르침으로써 교사 재량껏 교과 차시 및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시행된 객관식 시험 폐지로 인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소재로 선정하여 수업할 수 있게 되면서 상급학교에 비해 융합

교육이 용이한 구조이다. 그러나 교과담임제인 중·고등학교는 교과별 담임이 해당 교과만 지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공동체를 조직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진도 일정을 맞추거나 교사 개인이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초등학교에 비해 융합교육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 발행된 중·고등학교 대상 음악 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구 중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과가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절차를 담은 연구는 드물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대부분 관련된 타 교과의 과목명만 명기되거나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혹은 학습목표와 같은 짧은 내용이 언급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며, 음악 교사 한 명이 여러 교과를 섭렵하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제안은 융합교육에 관심이 있어 관련 연구를 찾아보더라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음악과 타 교과가 융합되는 지점과 융합의 목적에 관한 관련 교과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음악 교사가 타 교과 교사들과 융합의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구심점으로 기능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의도가 정확히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중에 비해 교사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수업 현장에서 융합교육을 지도하고 안내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즉 현장에서 융합교육을 조직·실행할 교사 또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이에 관한 교사 양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과학창의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융합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융합교육 인식 설문(유정숙 외 2016)을 보면 학교 현장의 융합교육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연수만으로는 교사 자신이 수업 현장에서 해오던 방식에서 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인재를 길러낼 교사가 되기 위해 학부 과정에서 교육받는 4년 동안 교사전문성으로서의 융합교육 역량 교육이 요구된다는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예비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예비교사 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은 이미 구조화된 융합교육을 학습자 입장에서 체험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융합교육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어와 조직력을 키우고 수업의 역동적인 구조와 그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융합교육의 정착과 확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과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eethovenian@daum.net

참고문헌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23. 개정) [별책1]. 2015a.
-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23. 개정) [별책12]. 2015b.
- 권난주·안재홍. ‘융합 및 통합 과학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 32-2. 265-278. 2012.
- 권수미.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41-2. 67-100. 2012.
- 김경화·장기범. ‘음악교육의 융합교육 접근을 위한 융합 개념 논의’. 한국초등교육 26-4. 211-234. 2015.
- 김진수. STEAM 교육론. 양서원. 2012.
- 문경숙·승윤희·정진원. ‘음악교육 관점에서 본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과 최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현황 고찰’. 미래음악교육연구 1-1. 41-61. 2016.
- 백성혜·오세라·이영준·정은영·최성욱·최정원·최지연. 융합교육의 이해. 이모션북스. 2017.
- 백윤수·박현주·김영민·노석구·박종윤·이주연·정진수·최유현·한혜숙.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4. 149-171. 2011.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2011.
- 유정숙·황신영·한인식.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참여한 초·중등교사들의 STEAM에 대한 인식 비교’. 교과교육학연구 20-1. 50-58. 2016.
- 이경진·이상수.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예술인문 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9. 825-832. 2017.
- 이명희·김은주. ‘학술지 내용분석법에 의한 교육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81-100. 2011.
- 이애란·태진미. ‘예술융합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인식 및 요구’. 예술교육연구 14-3. 47-64. 2016.
- 조대현.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구현을 위한 제언’. 음악과 민족 48. 183-207. 2014.
- 조대현. 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음악교육의 이해. 학지사. 2019.
- 주희선. ‘음악중심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육연구 18. 849-863. 2018.
- 최은영·문병찬·한광래. ‘국내 융합인재교육(STEAM)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구과학교육 10-2. 185-198. 2017.
- 태진미. ‘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왜 예술교육에 주목하는가’. 영재교육연구 21-4. 1011-1032. 2011.
- Cyram. *NetMiner Semantic Network Analysis*. Seoul: Cyram Inc. 2017.
- Cyram. *NetMiner Module Reference*. Seoul: Cyram Inc. 2017.

<Abstract>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f the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Saerom Im · Youngwook Song · Seounghey Paik · Kyunghoon Min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follow-up research by analyzing trends in convergence education, which are generally conducted, and by analyzing in detail how convergence education-related studies centered on music are dealing with convergence. To this purpose, we have analyzed 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from 1998 to 2020 related to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by year of publication, subject matter,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s, subject related, and main keywor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sic-based convergence education has been steadily researched, and it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2 and then decreasing from 2016. In addition, about 30 percent more Western music was published than Korean Music. Second, there were the most studie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proportion of research on teachers in office (including preparatory teachers) was very small. Third, study papers included the most studies on program development, accounting for about two-thirds of the total, and no studies on evaluation and measurement. Fourth, there was a very high proportion of literature research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study. Fifth,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music and Korean Music also affected the approach to convergence education, indicating that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changed internally and externally. Finally, based on above analysis of results, other important issues for the future study on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Convergence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Korean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 접수일(2020년 5월 29일), 수정일(2020년 6월 29일), 게재확정일(2020년 10월 12일) 교신저자 민경훈